

‘무등아트판타지아-무등산과 함께하는 생태아트展’...11월23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서 제9회 환경미술제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미술의 공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창작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환경미술제가 열리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11월23일까지 대형기획전 제9회 환경미술제 ‘무등아트판타지아-무등산과 함께하는 생태아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간 지원, 광주시 후원을 받아 무등현대미술관 제1전시장 및 야외 일원에서 열린다.

2020년 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아픔을 체험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겹겹히 받아들이며 험겁고 무거운 시기를 견뎌낸다.

코로나19 확산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의 장기화는 전혀 다른 시대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정의 가동중단, 하늘길의 막힘 등 인간의 생활이 제한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연의 생태계는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마지막 최후통첩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각각의 예술가들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자신들만의 관점을 미디어, 입체, 설치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프로젝트화했다.

전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미술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제9회 환경미술제 무등아트판타지아를 통해 공존의 의지, 그리고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의 전 과정, 그리고 결과물이 어우러져 직접적인 공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 전달한다.



오는 11월23일까지 열리는 제9회 환경미술제 무등아트판타지아 ‘무등산과 함께하는 생태아트’전에 1천972마리의 오색빛깔 두꺼비가 전시돼 있다. <무등현대미술관 제공>

‘환경’ 중심...자연과의 공생·희망적 메시지 담아 미디어, 입체, 설치미술 등 다양한 시각예술 선보

지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과연 예술가들은 어떤 응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이 주고 받는 대화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관계에 대해 ‘무엇을 깨우칠 수 있을까’를 고찰한다.

참여작가는 국도현, 김도형, 김명진, 류건우, 안병재, 윤중훈, 이유민, 정원서, 최재민으로 9명 모두 신진작가다.

이들은 기획자, 스텝 전문가들과 함께 ‘자연 그리고 인간’ 워크숍과 ‘무등아트판타지아’ 세미나를 거쳐 환경과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에 대한 구성과 작품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움직임과 더불어 항상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과 문화의 유익한 공생관계를 표현하고자 문제해결의 극복의지를 프로젝트화해 만들어 낸 시각예술 전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972년 국제환경의 날이 지정된 의미를 부여해 무등산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으나 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를 통해 환경을 되돌아본다. 오색종이로



‘바라보다’

만든 1천972마리의 오색빛깔 두꺼비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사막화하는 지표면을 피해 위태롭게 공중에서 매달려있는 자연물을 나타내는 설치작품, 삶의 터전인 무등산을 바라보며 기계화된 자연을 그리워하는 대형 금두꺼비, 환경오염의 실상과 아픔을 담은 영상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메타_가든’展...참여작가와 대화

박상화·소수빈·윤제호 초청...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이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 특별기획 ‘메타_가든’전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메타_가든’전 ‘작가와 대화’는 이번 전시의 부대행사로 21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북라운지에서 열린다.

전시 참여작가인 박상화, 소수빈, 윤제호 작가가 초청돼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음악 등을 미술에 응용·접목한 융복합 현대미술의 방향과 미디어 아트에 발전, 그리고 각 작가 개인의 예술세계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내달 14일까지 본관 제1.2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가상’의 예술정신을 구현한다. 다양한 기술문명과 작가들의 미적 상상력이 결합된 융복합 작품들의 전시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호응을 받으며 연일 많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화는 조각을 전공한 광주 영상미술편역의 1세대 작가로 이번 ‘메타_가든’전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기



박상화

소수빈

윤제호

초한 일상의 공간, 사람, 사물 등을 소재로 자연에 대한 상상들을 영상으로 그려냈다.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변화와 섬, 사유의 공간을 펼쳐낸 ‘공중 비디오 정원’ 작품을 선보였다.

소수빈 작가는 프랑스 국립 파리8대학 교에서 현대예술과 뉴미디어를 전공했다. 전시 중인 ‘신-생태계의 휴리스틱’은 자연의 순환구조와 식물이미지의 재조합을 기초로 한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실험으로 창작한 미래형태의 환경적 변화를 제시한다.

윤제호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 작곡을 전공,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메타_가든’전에서는 관객이 작품을 안을 거닐며 빛과 소리의 촉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휴식동굴’이 전시되고 있다. /최명진기자



‘굿’ 소재 창작극, 국악의 멋 만끽해볼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굿 세워라 금순아’ 공연

“숲을 베어내면 마을에 흥년이 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며 결국에는 마을이 소멸된다. 반대로 숲을 정성으로 지키면 반드시 숲이 인간을 돌보고 숲을 지키는 이의 자손은 대대로 번창한다.” (‘굿 세워라 금순아’ 줄거리 중)

민속신앙 ‘굿’을 소재로 사물놀이와 가무가 결합한 독창적인 창작극 ‘굿 세워라 금순아’가 광주 시민들을 찾아가

다. 국악의 멋·흥이 가득한 이번 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재)서울예술단이 출연하는 ‘굿 세워라 금순아’ 공연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공연이다.

‘굿 세워라 금순아’는 글썽 ‘문’에 봉우리 ‘봉’자를 쓰는 ‘문봉리 마을’이 도로건설 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놓이면 서 마을 사람들이 30년 만에 마을 굿을 복원하기로 결정, 마을을 지키기 위한 당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타악 단원들이 주축이 된 특별한 가무극을 선보인다. 신나는 음악과 리듬, 온 몸을 들쭉이게 하는 춤, 우리에게 익숙한 신명나는 장단으로 어우러진 소동극은 새로운 장르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최명진기자

Lydian Factory
리디안 팩토리

7인조 밴드가 선사하는 재즈 선율

오는 27일 ‘리디안팩토리’의 ‘이야기안의 이야기’ 무대

광주문화재단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리디안팩토리’의 ‘A Story Within A Story (이야기안의 이야기)’ 무대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다양한 곡들의 작은 스토리들이 큰 이야기를 만들어 음악으로 표현되고, 연주자들의 즉흥성이 더해져 흥미로운 정통 재즈음악무대가 펼쳐진다.

7인조 밴드인 ‘리디안팩토리’는 모든 음의 쓰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음악을 새롭게 창조하고 펼쳐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공연 연주자는 피아노 강윤숙, 베이스 전사무열, 보컬 윤덕현, 재즈바이올린 김하성, 색소폰 김병렬, 드럼 원익준, 기타 김한빈 씨가 출연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예약은 전화 (062-670-7926)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S.L.T
www.slhealth.co.kr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릴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충격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충격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 무충격 | LS프레임 | 세미헝스페이스 | 자동 체형인식 | 7가지 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내피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충격 기능